동지기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져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동지는 태양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지에 왕들은 신하들에게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은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풍속이 이어져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에서도 동지에 달력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지에는 부채를 동지에는 달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지에 사찰에서는 새로운 기운을 통해 부처님께 가정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하는 동지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 전에 자기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입재 - 불기 2567년 **12**월 **16**일(음 11월　4일)
회향 - 불기 2567년 **12**월 **22**일(음 11월 10일) 동지

■ **동 참 금** : **3**만원 (팥죽용 팥, 찹쌀 공양 사전 접수받습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11

부처님 말씀 불교를 믿는 힘 / **이달의 법문** 지극한 道는 어렵지 않다 / **주지스님 법문** 분별심 / **결망메고** 개산대재와 속리산문화축제 / **감로의글** 대마도 상념 / **수행여화** 나무이야기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선원불사 모연문** / **수능백일기도 회향** / **다도회 모집** / **합창단 모집** / **동안거 백일기도** / **동지기도**

불교를 믿는 이유

옛적에 미란왕(彌蘭王)이 나선비구(那先比丘)에게 물으시되
사람이 세상에서 백 년을 악을 짓다가 죽을 때에 염불하면
죽은 후에 천상에 난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며,
백 년을 선행을 하다가 한 중생을 죽이고도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내가 믿지 아니한다 하니,
나선비구가 왕에게 물으시되 적은 돌을 가지고 물 위에 놓으면
이 돌이 떠 있겠는가 가라앉겠는가 하고 물으니,
왕이 대답하되 그 돌은 가라앉습니다,
나선비구가 다시 물으시되 만약에 큰 돌 백 개를 가지고
배위에 놓으면 가라앉겠는가 가라앉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니,
왕이 대답하되 가라앉지 않나이다.
나선비구가 대답하되 배 가운데 큰 돌은 물에 뜬 배로 말미암아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죄지음에도 또한 이와 같아
아무리 죄 많은 자라도 한 때 염불(念佛)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상에 나느니라.
아무리 적은 돌이라도 배 위에 놓지 않고 물에 놓게 되면
가라앉는 것과 같이 사람도 죄악을 짓고,
불교(佛敎)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나선비구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11 | 통권 382호



2 부처님 말씀 불교를 믿는 이유
4 이달의 법문 지극한 道는 어렵지 않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분별심 정도 스님
10 걸망메고 개산대재와 속리산문화축제 진정 스님
12 감로의글 대마도 상념 장산 스님
15 수행여화 나무 이야기 현진 스님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1 선원불사 모연문
22 수능백일기도 회향 / 다도회 모집 / 합창단 모집
23 동안거 백일기도
24 동지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11월호 통권 382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지극한 道는 어렵지 않다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但莫憎愛 하면 洞然明白하리다.
밉고 고운 생각이 없으면 툭 트여서 명백하리라.

毫釐有差하면 天地縣隔하리라.
티끌만 한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나니

欲得現前 이어든 莫存順逆하라
눈앞에서 진리를 보려거든 순역을 두지말라

違順相爭이 是爲心病이니
어긋난다. 맞다. 시비하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니 不識玄旨하면 徒勞念靜이라.

깊은 뜻을 모르면 생각을 가라앉혀도 소용이 없다.

信爲道源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굳게 믿는 한마음이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로다. 모든 착한 법이 여기서 길어진다.

遠離妄想及諸趣 令心所向皆無碍
갖은 망상 잡된 생각 이것을 벗어나면 그 마음 가는 곳에 걸림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마음 그것이 그대로 부처인 것을 믿는 그 마음이 굳게 바로 서야만 그 마음에 들어있는 때를 벗기는데
정진할 것이며 이 정진이 곧 육도로 직결됨으로 보살 선행이 자연 성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바로 알고 여기에 伍欲貪嗔을 제거하여 해탈성불의 고지로 향하는 사람이
어찌 악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塵累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無碍自在 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믿는 기본자세와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부처라는 이 신념이 견고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 위에 어떠한 선행과 공덕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한갓 미신일 수밖에 없으며 蒸砂作飯의 徒勞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으며 또는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코 옳은 건축이 될 수 없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조국사 정혜 결사 문에도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고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方木을 가지고 圓孔을 막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땅을 떠나
일어나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心卽佛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처를 별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대한 착오이며
미신의 愚衆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부처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종교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격 완성을 곧 성불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이신 金자 烏자 큰 스님께서는

深入心體忽然覺 十方世界唯心体
깊이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면 홀연히 깨닫게 되나니 시방세계는 오직 마음의 본체만 있다.

從此萬法我作用 頭頭皆是靈明體
이 만법을 좇아 내가 작용한다면 사물의 모든 것이 영명한 본체이다.

佛身如虛空 徧照於十方
부처님 몸은 허공과 같아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若人見得佛 佛受一切苦
만약 사람이 불법을 얻는다면 일절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我有眞空無事禪 巖前倚石打閒眠
나진공묘유를 가졌으니 선 또한 무사하고 바위 앞에 기대 한가로이 낮잠을 자노라.

請君仰面看虛空 廓落無邊不見蹤
그대여 고개 들어 허공을 보게나 확 트이고 끝이 없어 자취도 뵈지 않네

若解轉身些子力 頭頭物物總相逢
만약 몸을 움직이는 사소한 것이 제힘임을 깨닫는다면 두두물물 그 본체의 본성을 만나리.

本參公案 話頭가 무엇인고 不是心不是物不是佛
어째서 무자라 했는고. 어째서 삼서근이라 했는고?

話頭가 純一無雜해서 疑心이 더 나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어서 打成一片이 되면
銀山鐵壁이 무너져서 話頭가 打破되어서 廓徹大惡인 生死解脫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無上正覺을 성취한 후에 녹야원으로 伍比丘를 尋訪하여
開口一聲으로 我는 中道를 正等覺하였다고 宣說하였다.
이것이 부처님의 大覺의 내용을 開陳한 中道大宣言 이여서 중도는 불성이므로
中道正覺 하였다 하면 불성이 正見卽見性 하였다 합니다.

中道之法은 名爲佛法이니 是故로 佛性은 常樂我淨인니라.
제일의 공과 부처와 열반은 전부 불성을 말합니다.

如何大惡하고 知見이 고명한 것 같아도 實地境界 있어서 睡眠時如前히 暗黑하면 妄識이 變動이오.
實惡는 아니다.
한 생각 격차로 성불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며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며
정신과 미신이 벌어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떨어지고 선과 악이 없는 자리,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美醜長短이 一理濟平이라.
청정진여 세계에는 生死도 없고 去來도 없고 男女도 없고 老少도 없고 增感도 없이 유무가 초월 된 세계,
선악이 미치지 못한 세계, 시공이 걸리지 않은 세계, 이것이 부처님 세계인 것입니다.
高下深淺이 떨어지고 憎愛가 떨어지고 生死가 떨어진 자리라야 진실된 대자대비인 것입니다.
厚와 薄이 있고, 長과 短이 있는 자비라면 이것은 결코 대자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松風流水天然調 抱得琴來不用彈
소나무 바람 흐르는 물은 자연의 곡조요. 거문고 안고 왔으나 타지 않네.

岩下小泉歸海意 庭前老栢拂雲心
바위 아래 작은 샘물은 바다로 돌아갈 뜻이요. 뜰앞 늙은 잣나무는 구름을 떨치 마음이다.

한암스님의 오도송을 보면

着火廚中眼忽明 從玆古路隨緣靑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홀연히 눈이 밝으니 이를 쫓아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若人問我西來意 岩下泉鳴不濕聲
누가 내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위 아래 울리는 샘은 소리를 적시지 않는다 하리다.

이 無常殺鬼의 무서운 迫擊과 三界火宅의 뜨거운 暗夜를 뛰어 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심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우리는 얼마 전까지 더운 날씨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봄꽃보다도 아름답다는 가을 단풍은
어찌나 짧은지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과
찬 바람에 지고 있는 단풍을 바라보며
자연과 계절이 매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기법은 부처님 말씀처럼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리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과 찬 바람에 지고 있는
단풍을 바라보며 자연과 계절이 매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기법은
부처님 말씀처럼 변함이 없구나



개산대재와 속리산 문화축제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불가佛家에서 개산開山은 '산문山門'을 여는 일,
즉 사찰의 창건을 의미한다.
개산대재開山大齋란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창건일을 기념하여 여는 큰 법회를 말한다.
개산조開山祖란 한 종파나 사찰을 창건한 스님을
말하는데, 개산대재 때는
괘불(掛佛: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대형 불화)을 경내에
장엄하고 역대조사 다례재를 지내며 사찰을 창건한
스님과 역대조사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개산대재는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전통적인
불교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행사로,
최근 들어 많은 사찰이 단순한 의식 법회의 차원을
넘어 역대조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전시회나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불교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불교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열린 마당으로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법주사는 553년 의신스님께서 창건한 사찰이다.
속리산이라는 깊은 명산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뒤 760년에 진표율사와 그 후대에 벽암선사에
의해 중창되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고찰과 대사찰이
있지만, 법주사는 팔상전과 미륵대불로
잘 알려져 있다.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인 법주사는
해발 1000m가 넘는 골짜기다. 골짜기마다 높은
기암절벽이 늘어서 있고 봉우리가 웅장하게 솟아
있는 아름다운 산이다. 이러한 명산에 천년고찰
법주사는 중심에서 천년을 넘게 자리 잡고 있다.
충청도뿐 아니라 각지에서 관광과 참배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해마다 봉행하는 개산대재는
역대조사 다례재 외에도 새천년을 열어가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사찰답게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과 사부대중,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 문화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전통 불교 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주요 행사로 백미백락, 개산대재, 산사의 미락,
사찰음식 전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백미백락은 지역의
다문화가정 대표로 베트남, 태국, 러시아, 일본,
캄보디아의 음식을 체험하고 시식할 수 있는 행사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알리고 화합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산사의 미락은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찰 전통음식을 비구니스님들께서
직접 준비하여서 시식도 하고 간단한 체험을 통해
만드는 과정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에서 홍과 기쁨의 한마당으로



꾸며지는 산사음악회는 이 모든 행사의 마무리로
모두가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알리는 일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산대재에 올렸던 공양을 법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며 우리의 아픈 역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1400년 전 법주사를 개창한 선조님들께
올리는 감사의 뜻이고 진정한 회향이라 생각한다.
'잔치 · 축제'에 방점을 찍고 사찰의 역사와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의미를 새기고 문화도 발전시켜야 한다.
사찰의 정서와는 이반 되는 전시, 공연은 축제라고
하지만, 선별하여 선택하고 불교적 축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산대재는 1700여 년
한국불교사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 학술, 예술, 전법, 수행, 생활, 문화재 등
유형 · 무형의 모든 문화를 재현하여 전승하는
큰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마당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불교 정체성만을 고집하자는 건 아니다.
지역민과 시민이 큰 거부감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와 전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0월 21일 개산대재와 속리산 문화축제를
준비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축제가 불교 문화를 승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마도 상념對馬島 想念
(대마도 여행을 그리며)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그리던 대마도 여행
부산항에서, 오늘 유독惟獨 파도 물결 드높고
옛 조선통신사선朝鮮通信使船 역사문화 물길 그립다.

지금의 대마도 인심人心은
기다린 듯 한국 여행객 반긴다.

상욱 가이드 거침없는 입김속에
조선말朝鮮末 덕혜옹주 사연 슬프고녀
빨강다리 위, 높고 더 넓은 전망대展望臺
기념촬영에 손길 분주한 가이드

객창客窓에 스며드는 가을바람 우수수
나그네 시름은 향수鄕愁로 가슴 깊이 젖어든다.
도리어 묻건대, 인생人生이란 무엇인가?
크고 작은 여행길에 은근慇懃히 부촉咐囑하노라. (부탁하는 간절한 뜻)

2023년 9월 24일 법주사 사리각 무림茂林 장산長山







※ 이날 파고波高는 2.5~3.0m로 출항出港을 판단키 어려웠다 한다.
※ 상욱 가이드 : 하나투어 소속 남자 가이드
※ 빨강다리: 만관교灣關橋 – 만제키 비치. 혹은 전승의 이미가 있는 다리.
(1897~1900년 완공한 다리) 러 · 일전쟁과 상관한 뜻이 있음.



●●수행여화

나무 이야기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이곳에 터를 잡아 사찰을 이룩한 뒤
해마다 나무와 꽃을 심었다.
사찰 땅 절반 이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절을 새로 건립할 인연이 생기면
건물보다 꽃과 나무가 주인이 되는 수행처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생각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국화밭 근처의 나무들엔 기증자들의
이름이 걸려 있어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작은 숲이 조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제법 키를 높인 나무를
보노라면 격세지감이 든다.
여기 오던 해에 기념식수로 심은 능수벚은
잘 성장하여 굵고 풍성한 수형을 갖추었다.
화사한 봄날을 연출하기엔 벚나무보다
더한 꽃이 없기에 해마다 다양한 품종의
벚나무를 옮겨 왔다.
올봄에는 목수국을 한 트럭 구해와 심었는데,
수줍고 여린 향기를 여름 내내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인 나무와 꽃이 참 많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설레고 반가웠다.
그 누구보다 더 오래 내 곁을 지켜 줄 친구들.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흔적을 기억해 줄 것이다.
먼 훗날 이 절을 떠나게 될 때 숲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숲은 세월과 시간의 역사이다.
절대 그 과정을 거스를 수 없다.

시간 시간을 켜켜이 쌓아야 나이테가 형성되니까
새치기나 뛰어넘기도 통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세월을 건너야
자신의 개성과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
그동안 어린나무를 데려와 어른 나무로 키우는
재미를 즐겼는 데 성장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소소한 기쁨이 있어 보람 있었다. 불두화,
단풍나무, 목련, 매 화, 라일락, 능소화, 병꽃나무,
칠자화, 모란 등 모두 묘목이 자란 것이다.
그러니까 절의 역사 가 곧 나무의 나이라
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이곳에 터를 잡은
창립 가족들이다.
송광사 불일암은 여전히 옛 주인의 모습들이
잘 남아 있었다. 대숲과 더불어 후박나무도
그 시절처럼 울울창창했다.
여러 성상星霜이 바뀌었으나 암자의 풍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새 주인이 부임하면 면모를 일신하는
다른 암자들과 다른 점이랄까.
그곳에 머물던 인물은 떠났어도 그가 남긴
청정하고 맑은 수행의 기상이
곳곳에 스며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30여 년 전 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 심어 놓은
나무들의 청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후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벽오동 등이 마음껏 허공을 뻗어가는 그 기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 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대지 위에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 법정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법정스님은 이곳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
부탁하며 허락받은 세월을 살아 주길 원했다.
아마도 암자의 진짜 주인은 숲이라는
지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인간의 나이가 나무의 수령 보다 앞서겠는가.
이러하기에 우리의 손으로 수목의 생명을 가볍게
다루거나 단축할 일은 절 대 아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인간이 먼저 예의를 갖추고
그 그늘에 깃들어 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불일암의 오랜 규범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다. 불전佛殿을 짓고
절을 키우기 이전에 그 둘레에 수행자의 정신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 살던 절에서는 후박나무를 심었다.
불일암 수목을 대표하는 그 후박나무를
나의 정원에 서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옆 동네에서 데려와 식목하는 날 하늘을 향해
무한정 뻗어가길 염원했었다.
지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정말로 아름드리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 온종일 국화밭 풀을 메고 방으로 왔다.
가을은 성큼 다가왔는데 여름의 표정이
남아 있다면 계절에 대한 결례다.
이런 이유로 철이 바뀔 때마다 맑은 기운으로
도량을 조촐히 하여 마중하는 나만의 의식이다.
이곳 정원을 날마다 가꾸는 것은,
무슨 거창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에 집중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하직할 때 모조리 싸 들고 갈 것도
아니므로 그저 지금의 순간을 즐길 뿐이다.
집착은 괴로울 수 있으나 집중은 주어진
그 한때를 열심히 사는 방식이다.
자신의 삶이 휘청거리거나 무겁다면
그것은 집착의 요소가 더 많은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삶의 방향이 집착에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행복의 비결은 달리 없다.
일상에서 집착보다는 집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인생이 경쾌하고 가벼워지려면
어떤 순간이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 집중할 수 있다면 결코 인생이 시시하거나
무료하 지는 않을 것이다.
나무 식구들을 보며 우리 이웃들 삶의 방식은
집착인지, 집중인지 묻고 싶었다.



멋있는 단풍이 있는 법주사

쾌청한 하늘, 풍성한 단풍과 함께하는 법주사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울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변하지 않으며,
좋은말을 해주고
동정심이 많은 친구가 되라
–법구경–

2023. 1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9.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 19	3 20	4 21 광명진언기도
5 22	6 23 다도반법회	7 24 관음재일 합창단법회	8 입동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10.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14 2	15 3 신중기도회향	16 4 수능100일기도회향	17 5	18 6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9 7	20 8 약사재일 다도반법회	21 9	22 소설 10	23 11	24 12	25 13
26 14	27 15 보름 동안거결제	28 16 미륵재일 철야기도	29 17	30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10월 7일 천년의 향기 6차



10월 21일 속리산 문화축제



10월 21일 속리산 문화축제 1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11**월 **4**일(음 9월 2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11**월 **18**일(음 10월 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선원불사 모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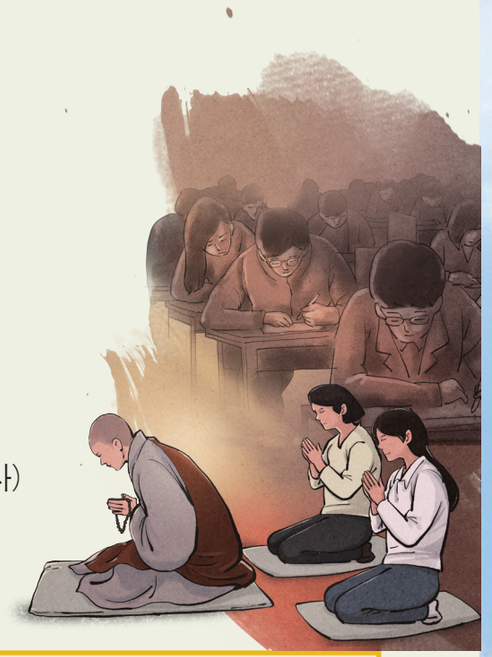
법주사 총지선원은 경허선사, 만공선사로 이어지는
금오선사의 수행가풍이 살아 숨 쉬는 수행처로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는 전국의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을 위해 찾는 수행처입니다.
금번 법주사에서는 이러한 수행공간인 총지선원이
많이 낙후되어 수좌스님들의 정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원불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공간인 선원을 보수하는 불사는
시절 인연이 없이는 불사에 동참할 기회가 닿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불사에 동참 인연으로 무량복덕 지으시고
불사의 인연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 **선원불사 계좌 : 농협 351-0328-7909-53**
- **문 의 : 043-543-4755 (원주실)**

수능백일기도 회향

2024년 수능 100일기도를 회향기도를 봉행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회　　향** : 불기 2566년 **11**월 **16**일(음력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동안거 백일기도





법주사에서는 스님들의 겨울 공부기간 동안인
동안거冬安居를 맞이하여 10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겨울 한철 동안 화두 타파를 위해
정진하듯 불자들도 이 기간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개인의 신행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위해 봉행하는
동안거 특별기도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7년 **11**월 **27**일(음 10월 15일)
- **장　　소** : 대웅보전
- **동 참 금** : 백일기도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